

'빅뱅' 리더 지드래곤, 건재함 과시

4년 만에 나온 솔로 앨범 '무제' 7개 음원사이트 점령

지드래곤이 솔로 앨범으로는 4년 만인 지난 8일 오후 6시 발표한 '권지용'의 타이틀곡 '무제'가 멜론, 네이버뮤직 등 주요 7개 음원사이트의 실시간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무제'는 피아노 선율이 매우 인상적인 곡으로서 지드래곤이 애절한 감성으로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느린 템포의 곡이다.

'무제' 외에 인트로곡 '권지용'을 비롯해 '개소리', '수퍼 스타(SUPER STAR)', '신곡' 등 다른 수록곡 4곡도 '무제' 뒤를 따르며 이른바 줄세우기로 상위권에 올랐다.

앞서 본래 타이틀곡으로 강렬한 힙합곡인 '개소리'를 내세웠으나 팀 동료인 탑이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인 만큼 좀 더 차분한 분위기의 곡을 타이틀곡으로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음악, 패션, 문화계 전반에 걸쳐 파급력을 자랑하는 지드래곤은 지난 10여년간 빅뱅 대다수 곡들의 작사, 작곡에 참여 하며 오늘날 빅뱅이 있기 까지 가장 중대한 역할을 했다.

지드래곤은 이번 앨범을 통해서도 빅뱅에 힘을 실었다.

빅뱅의 또 다른 멤버 탑(최승현)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을 앞두고 있는 난처한 상황에서 음악적인 재량으로 팀의 돌파구를 만든 셈이다.

네티즌들은 지드래곤이 위기에 빠진 자신의 소속 그룹 빅뱅 구하기에 나섰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앞서 지드래곤은 최근 일본 팬미팅에서 탑을 대신해 현지 팬들에게 사과하기도 했다.

'권지용'이라는 본명을 앞세운 것에서 보듯 이번 앨범은 지드래곤의 정체성을 내세운 것이다. "나에게 돌아오기가 / 어렵고 힘든 걸 알아 / 이제 더는 상처받기가 / 두렵고 싫은 걸 알아"라는 노랫말은 상대방보다 자신에게 돌리는 말인 것처럼 보인다.

'무제'라는 타이틀을 감안한 때 노랫말은 이외에도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고 / 다 잊을 수 있다면 / 그 기억도 행복했던 추억도 / 아니 다음 생 에도 너를 / 만나 다시



지드래곤의 솔로 앨범 '무제'

사랑하기를 / 예전 그대로"는 탑에 대한 메시지로도 해석되는 이유다.

YG는 "기대감이 엄청난 부담이 됐을 지드래곤은 이번 솔로 앨범을 통해 여느 어른들과 같이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30대의 시작에 선 성장통에 대한 감정을 그대로 가사에 옮김으로써 인간 '권지용'으로서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한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히트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앨범이라기보다 인간 권지용으로서 현재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과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담아낸 앨범"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앨범은 또 트렌드를 앞서가는 지드래곤답게 새로운 형식으로 앨범을 발매해 눈길을 끈다.

오프라인으로 발매되는 '권지용 A형 1988년 8월 18일'이라는 지드래곤의 개인 정보가 문구로 새겨진 USB로 출시됐다.

YG 관계자는 "기존의 일반적인 제작 형태가 아닌지라 물량 수급과 제작에 적지 않은 난항을 겪고 있지만, 늘 새로움을 추구하려는 지드래곤의 의지와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제작 일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무제' 뮤직비디오를 단 한 번에 한 시간도 안돼 촬영을 끝냈다는 점도 화제가 되고 있다.

YG는 "빅뱅 데뷔 이래 역대 최단시간 기록의 뮤직비디오 촬영 시간일 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이런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며 "뮤직비디오의 경우 세트를 변경하는 데에만 몇 시간이 걸리기에 보통 2-3일 촬영이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뉴스



여진구·이연희, 멜로 호흡 SBS 새 수목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 출연

배우 여진구(20)·이연희(29)가 SBS 새 수목드라마 '다시 만난 세계'(극본 이희명, 연출 백수찬)에 출연한다고 SBS가 지난 9일 밝혔다.

'다시 만난 세계'는 18살 청년과 31살 여자의 사랑을 다룬 판타지 로맨스물이다. 여진구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성혜성'을, 그런 그를 사랑하는 '엄현수'는 이연희가 연기한다. 이연희 아역은 '아이오아이'의 정채연이 맡는다.

'미녀 공심이'(2016) '아왕'(2013) 등을 쓴 이희명 작가가 극본을, 이 작가와 '미녀 공심이' 넷세를 맡는 소녀(2015)로 호흡을 맞춘 백수찬 PD가 연출을 책임진다.

'다시 만난 세계'는 '수상한 파트너' 후속으로 다음 달 방송될 예정이다.

/뉴스

'대마 흡연' 탑, 의무경찰 직위 박탈

향후 재판서 1년6개월이상 형 확정되면 불명에 전역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을 나서고 있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지난 9일 의무경찰 직위를 박탈당했다.

서울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를 이날 자로 직위해제하고 귀가조치했다.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에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는 '불구속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공소장이 이날 최씨 자택과 변호인 측에 도달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내부 규정상 최씨는 공소장 도달 사실을 제4기 동단 예하 42중대로 알리고, 4기동단에서는 서울청 의경계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서울청 의경계는 이날 오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공문을 작성·결재함으로써 공문 결재와 동시에 최씨에 대한 의무경찰 직위가 해제됐다. 직위가 해제된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씨의 소속부대인 4기동단은 관련 내용을 통지한 후 최씨를 귀가조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씨는 빠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퇴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경찰 신분인 최씨는 자택으로 귀가한 후 향후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법원으로 부터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강제전역해야 한다.

반면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경 부대로 복귀하거나 사회복무요원 또는 상근 예비역과 같은 보충역으로 남은 병역의무를 마쳐야 한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은 최씨를 서울경찰청 악대에서 제4기동단으로 전출 조치했다.

이후 최씨는 4기동단 예하 42중대 소속으로 부대배치 받은 뒤 지난 6일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호흡 부전으로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다.

최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현재 의식을 되찾아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SM 차세대 그룹 'NCT 127' 5개월 만에 컴백

SM엔터테인먼트의 차세대 그룹 '엔시티(NCT) 127'이 5개월 만에 컴백한다.

SM에 따르면 NCT 127은 오는 14일 오후 6시 세 번째 미니앨범 'NCT #127 체리밤'을 공개한다.

태일, 자니, 태용, 유타, 도영, 재현, 원원, 마크, 해찬 등 9명 멤버로 구성된 NCT 127은 작년 7월 첫 미니앨범 'NCT #127'로 데뷔했다.

그 해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와 '제 31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등 신인상 7관왕을 수상하며 가요계 루키로 주목받았다.

올해 1월 발매한 두 번째 미니앨범 'NCT #127 리미티드스'는 국내 각종 음반 차트 1위 및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1위, 해외 5개국 아이튠즈 종합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누적 음반 판매량 20만 장을 돌파했다.

엠넷 '고등래퍼'에서 활약한 마크를 비롯해 SBS TV '인기가요' MC 도영, SBS 파워 FM 'NCT의 나이트 나이트' DJ 자니와 재현 등 개별 활동을 병행하며 얼굴을 알리고 있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